

2023. 9. 27.(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9월 27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2133-5360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 2133-5374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5쪽

관련 누리집 ecc.seoul.go.kr

서울시, "기온 뚝 떨어지는 10월엔 '난방용품 사용' 주의하세요"

- 10월 '난방용품 소비자 피해예보'... 피해 사례 중 '품질·안전문제'가 가장 많아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따른 인증(㉸)제품 구입 당부... 저온화상 등 화상 피해 유의
- 1372소비자상담센터, 온라인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2133-4891) 상담
- 시 "특정 시기 집중발생하는 소비자 피해품목 예보통해 공정한 소비생활 도울 것"

갑자기 서늘해진 날씨에 A씨는 지난해 구입했던 가스 전기장판을 꺼냈다. '저온 1단'에 맞춰놓고 잠이 들었다가 둔부와 다리에 통증을 느끼고 일어나 병원에 갔더니 2도 화상을 입었다는 것. 이후 수술 등 40일간 통원 치료를 받게 돼 전기장판을 구입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겨울,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온라인쇼핑몰(전자상거래)을 통해 전기장판을 구입한 B씨. 판매 페이지에 하루 8시간 씩 20일 사용 시 전기세가 5천원 가량 나온다고 설명된 회사 제품을 구입했으나 한 달 사용 후 전기세가 7만 원이 넘게 나왔다.

- 서울시가 기온이 뚝 떨어져 난방용품을 찾기 시작하는 10월에는 전기장판·전기히터 등 사용으로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며 10월 한 달간 '난방용품 소비자피해예보제'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 시는 소비자에게 특정 시기에 증가하는 피해품목과 유형을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소비자 피해품목예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기별 예보 품목은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빅데이터 57만여 건을 분석해 정했다.

1월	겨울의류	2월	포장이사	3월	사설강습
4월	건강식품	5월	야외 활동부	6월	체력단련회원권
7월	냉방용품	8월	숙박·여행	9월	택배
10월	난방용품	11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상품	12월	인터넷 교육서비스

- 최근 4년 간('19~'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난방용품 관련 상담은 총 3,361건으로, 10월에는 전월 대비 약 56% 상담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품질·안전'이 절반 이상(71%)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품질불만, AS불만, 안전문제 순이었다.)
 - 시는 최근 등유 등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부분 난방이 가능한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 사용이 10월 무렵부터 늘어나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 서울시는 난방용품을 구매할 때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 후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증 여부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www.safetykorea.kr) 확인할 수 있다.
- ※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할 경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제1항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
- 또 전기장판·전기히터 등을 오랜 시간 사용하는 경우, 저온화상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당뇨, 신경마비 등의 질환을 보유한 환자는 전기장판 등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심각한 화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난방용품 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관련 불만도 다수 접수되는데 전기사용량은 냉장고, 세탁기와 같이 상시 전력을 소모하는 제품을 포함하여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난방용품의 ‘소비전력량’만 생각하고 장시간 사용하면 누진 등으로 과도한 전기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난방용품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고,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2133-4891~6)로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는 10월부터는 전열기 관련 안전사고 사례와 유의점을 잘 숙지하여 안전하게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특정 시기에 집중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품목 예보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붙임1 난방용품 사용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① 전기장판 · 온수매트 사용시 주의사항

- 라텍스나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 위에 깔아놓고 사용하지 마십시오.
 - 라텍스와 메모리폼 소재 침구류는 열에 약하고 인화성이 높아 함께 사용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취침 등 오랜시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온도 조절에 신경쓰십시오.
 - 전기장판을 접어서 사용하면 내부에 있는 전선이 끊어지거나 얽혀 합선 또는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찜질기, 개인용 온열기 사용시 주의사항

- 수면 중에 사용하거나 다른 기기와 같이 사용하지 말고, 사용후에는 내부 전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펴서 보관하십시오.
- 피부에 직접 접촉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과 유아가 사용시 저온 화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전기히터(난로) 사용시 주의사항

- 전기히터를 사용할 때는 주위에 열복사율이 높은 물건이나 인화물질을 두지 마세요.
- 벽과 반드시 거리를 두어 설치하고, 넘어지면 전원이 차단되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④ 전열기 사용시 공통 주의사항

- 전열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고장나거나 전선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과열방지를 위해 전열기의 플러그는 멀티탭 대신 반드시 단독 콘센트를 꽂아 사용하세요.
- 충전식 전열기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에 맞는 충전기를 사용하세요.
-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할 때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두세요.



소비자 피해 품목 예보제

1월 겨울의류 계약취소 거부·지연	2월 포장이사 운송품 파손 분실	3월 사설강습 계약취소 거부·지연, 위약금요구	4월 건강식품 계약취소 거부·지연, 분실·파손	5월 의류 (아외활동복) 환급취소 거부·지연, 제품불량	6월 체력단련센터회원권 계약취소거부·지연, 위약금요구
7월 냉방용품 (에어컨, 선풍기) 품질불량, A/S 불만	8월 여행 (숙박, 항공) 계약취소거부·지연, 위약금요구	9월 물류 (택배) 배송 지연, 운송품 파손	10월 난방용품 (보일러 등) 품질불량, A/S 불만	11월 블랙프라이데이 배송 지연, 운송품 파손, 연락두절	12월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취소거부·지연, 위약금요구

- 
위험 공식판매처보다 과하게 저렴한 가격의 판매페이지는 주의하세요!
- 
좋음 거래취소·환불요청시 사진, 이메일 등으로 증빙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아요!
- 
위험 개인 SNS를 통한 개별상담으로 현금할인가로 입금을 유도하는 곳은 주의하세요!
- 
좋음 계좌이체, 현금결제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아요!

구매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상담 신청하세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02-2133-4891

소비자상담센터 1372

